



제18회 세계가금학회 및 전시회 개최

회의기간 : 1988년 9월 4일 (일요일)부터 9월 9일 (금요일)

개최장소 : 일본 나고야 무역·산업센터(Fukiage Hall)

공 용 어 : 영. 불. 독. 로. 스페인. 일어.

등 록 비 : 1988년 4월 30일 이전 회원 35불, 수행자 20불

1988년 5월 1일 이후 회원 40불, 수행자 25불

등록비는 일본엔 (Yen)으로 지불함.

개회강연으로 일본 오니시 박사의 「일본 양계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계획되고 있으며, 특별강연으로 「현대사회와 가금학의 공헌」이란 주제의 일본 야마다 박사의 강연이 있고, 그외 「인간의 건강과 계란」 「가금복지」란 제목으로 미국 스타텐 박사와 서독 베그너 박사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본 강의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계속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9월 6일 : 개발 도상국의 양계산업의 구조와 문제점

1. 아프리카 2. 남아시아 3. 동남아시아
4. 라틴아메리카.

9월 8일 : 가금생산품의 효율적 이용

9월 9일 : "양계산업의 발전"

내용 : 육종, 영양, 질병 분야

본 강의와는 별도로 심포지움 또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학술발표회와 아울러 전시회가 나고야 무역센터에서 개최된다(P. I. DEC. 1986).

독일 계육소비 증가

독일 국민 1인당 계육소비량이 1986년도에 100g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브로일러 사육인 협회가 예측했다.

1985년 1인당 소비량은 5.9kg이었다. 전년 1월~6월 사이에 소비된 양은 18만9천톤으로써 약 1억7천8백만수에 해당하는 양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비 6%이상 증가된 양이다.

독일 계육생산자들은 급속 냉동육으로 소비량의 58%를 공급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판매된 계육량으로는 85%를 차지한다.

86년 전반기에는 브라질에서 1천1백만톤의 계육이 수입되었으나, EC에서는 수입견제를 위해 관세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독일 시장을 유린한 적이 있었다. 서독의 86년 전반기 계육 수입량은 8만1천톤으로 전년보다 약간 감소했다. 서독의 수출량은 1982년 5만톤에서 86년에는 4천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PIN. Oct. 86>

작은거인 화란의 금년 전반기 수출실적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의 1.5배 크기이고, 지원 면에서 우리와 조금도 유리할 것이 없는 화란이 양계기술의 향상과 방역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생산원가절감으로 수출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다.

화란은 1986년 전반기 6개월간에 31억 5천만개

의 계란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비 1.4%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액에 있어서는 전년도 4억 5천만 달러에서, 금년 3억5천5백7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되었다(한국 화폐단위로 계란 개당 수출 가격은 45.7원에 해당).

닭과 오리종란 수출실적은 작년 전반기보다 4.7%가 증가한 1억 8천6백5십만개였고, 수출금액도 7천5백만 달러로써 5.4%증가를 보였다고 유럽 농업정보지 Agra Europe가 발표되었다.

닭고기 수출실적은 전년비 3.3.%가 증가한 107.2 톤으로 가격은 0.4%가 증가한 456백만 달러였다. <PIN. Oct 1986.>

일본에서 치킨너겟 인기상승

1984년 한해동안 치킨너겟(Nuggets)의 판매량이 20% 증가하였다고 맥도널드 재팬과 켄터기 후라이드치킨이 발표.

이에 자극된 다른 식품업체들도 치킨너겟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 최대의 햄, 소세지 메이커인 “니폰햄”도 현재 매월 1천톤 이상의 치킨너겟을 생산하고 있으며 다이에이 회사는 작년 양의 2배를 판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발골 닭고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치킨너겟을 생산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현재 생산시설 증가로 치킨너겟은 과잉생산 상태이다. 1986년도 일본의 치킨너겟 생산량은 연간 10억개—2만여톤으로써, 연간 발골육 생산량의 4%를 차지한다.

86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은 36%가 증가되었다. 총 수입량은 55,467톤으로써 25,061톤(45%)은 미국에서, 22,162톤(40%)는 태국에서, 5,896톤(11%)는 브라질에서였다.

미국에서는 300g 내외의 뼈있는 다리형태로 21.020톤이 수입되었는데 수입된 후 발골되어 사용된다.

계육 수입량은 총 소비량의 10%정도으로써, 수입량의 증가로 발골육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지난 6월 동경 도매가격은 발골육 kg당 475엔, 1985년 6월의 570엔에 크게 못미치는 가격이다.

이러한 수입증가는 엔화절상이 큰 원인이며, 따라서 일본 육계산업은 큰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PIN. Oct. 1986).

미국양계의 一喜一悲

미국양계는 닭고기 소비량이 크게 늘어 즐거움에 차있는 반면, 저난가와 계란 소비량의 감소로 어두운 상황을 맞고 있다.

미국의 1인당 브로일러 소비량은 1985년의 25.17kg에서, 1986년에는 26.17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칠면조 역시 1985년에 비해 1986년도에는 11.6%가 증가한 61.2kg(년간 1인당)를 소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총 가금육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985년 31.75kg에서 1986년에는 33.56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985년의 계란소비량은 저난가에도 불구하고 1984년보다 6개가 적은 254.6개로 크게 떨어졌고, 1986년에는 또다시 3개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미농무성의 “Situation and Outlook Report”에서 밝히고 있다.

1인당 계란소비량은 1970년 309개에서 현재 255개로 크게 내려와 있다. <PI. Nov. 1986>

켄터기 후라이드치킨(KFC)

전세계에 6천5백개소의 판매점포를 가지고 있고, 일년 매출고 13억불인, 세계 제2위의 닭고기 판매점 체인인 켄터기 후라이드치킨(KFC)이 펩시(Pepsi Co.)에게 팔렸다.

청량음료업계의 제2인자인 펩시는 나비스코社(R. J. R. Nabisco)로부터 8억 5천만불에 KFC를 인수함으로써, 현재 보유중인 피자·헛(Pizza Hut)체인과, 타코·벨(Taco Bell)체인에 더하여, 총 1만4천여 점포를 전세계에 거느리는 세계 요식업계의 최강자가 되었다

<PI. Nov. 1986>